

시드니, 노상 영업 요금 전역, 전면 폐지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media-releases/outdoor-dining-fees-permanently-waived-across-sydney>

시드니의 거리가 활력 넘치는 야외 식사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드니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식당 등의 노상 영업 허용 및 요금(Outdoor dining fees) 면제 조치를 2025년 7월부터 영구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도시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시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요금 면제를 통해 약 1,000건의 야외 식사 공간을 승인하였으며, 그 결과 1만 3,000m² 규모의 새로운 외부 공간이 조성되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800여 개의 음식점과 카페가 참여했으며, 이는 고객의 증가와 고용 증가로 이어져 일부 업소는 매출이 20%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시민과 관광객들이 거리에서 안전하게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도심의 활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시드니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도시의 활용 공간 확장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야간 보행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골목길과 도심 상권은 야외 식사 공간을 통해 활기를 되찾았으며, 주민들 또한 “어두웠던 거리가 더 안전해졌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시는 도로 위 보도를 확장해 영구적인 야외 식사 공간을 마련하거나, 일부 골목길을 활용해 음악 공연과 문화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시드니시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시드니의 최우선 과제는 활기찬 야외 공간을 유지하면서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 등 모두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번 시책의 의의를 전하였다.

©Shutterstock



시드니 거리의 야외 식사 공간 운영 모습